

“벌써 몇 번째야”...밤 12시 광주 번화가 ‘택시 승차 대란’

동시 영업 끝 인파 몰려...새치기 시비 폭행 등 사고 우려 만취상태 PM 탑승 곡예운전...음주운전 상시 단속 시급

“제가 부른 택시인데, 벌써 세 번째 놓쳤어요...”

다음달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주 도심 번화가 곳곳에 ‘택시 승차 대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밤 12시에 술집과 식당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인파가 몰리는 데 따른 것으로, 택시를 새치기하거나 잡아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어서다.

특히 술에 취한 이들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탑승해 곡예운전을 하다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변화가 일대 경찰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밤 11시50분 광주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입구 인근.

이날 이곳 일대는 밤 12시 영업 마감 시간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려는 이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아직 크게 사람이 몰리지는 않아 대부분 5분 이내에 빈 택시에 탑승해 큰 어려움 없이 귀갓길에 올랐다.

곧이어 구시청 일대 식당·술집에서 인파가 쏟아지면서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복새동을 이루면서 ‘택시 잡기 대란’이 시작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인도를 넘어 도로 앞까지 나가 손과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며 빈차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웨딩의 거리에서 올라오는 택시는 이미 모두 탑승 완료된 상태였다.



24일 지정 무렵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입구 인근서 식당·술집의 영업시간이 끝난 뒤 몰린 인파가 귀갓길 위해 택시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안재영 기자

지나가 손과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며 빈차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웨딩의 거리에서 올라오는 택시는 이미 모두 탑승 완료된 상태였다.

기약이 없는 콜택시 배차에 지친 이들이 인파를 피해 앞쪽으로 이동해 올라오는 택시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새치기와 다를 게 뭐

냐, ‘여기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보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까스로 배차가 완료돼 택시가 이곳으로 도착해도 문제였다.

기다리는 이들 대부분 스마트폰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차를 기다리고 있어 도착한 택시 기사는 누가 탑승 손님인지 알 수 없었다.

한 손님이 자기가 부른 택시라며 탑승했지만 출발하기 직전 다른 일행이 다가와 ‘왜 우리가 부른 택시를 가로채냐’며 일순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택시 기사 정모(45)씨는 “영업 제한 시간만 가까워지면 번화가 쪽에서 호출이 쏟아지는데 막상 받아서 가보면 누가 고객인지 알 수가 없다”며 “탑승 전 고객에게 (콜) 맞냐고 확인하는데 거짓으로 답한 뒤 타는 손님도 많아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장기간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리를 떠나는 등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광주 도심 번화가 곳곳에서 택시 승차 대란이 기승을 부르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이날 대다수 시민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는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의 음주 여부가 의심되면 음주 측정도 진행하고 있다”며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음주 수칙에 따라 면허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도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정선건강의 날을 기념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이 25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마음건강 차차차 체험 힐링존'에서 편안해지는 문구가 적힌 캘리그래피 체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위장 전입 뒤 아파트 계약 공무원 벌금형

지역 거주자 공급 우선권 제도 이용

거짓 전입신고 한 뒤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제공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지역 한 관서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모 아파트 청약에 신청·당첨돼 지난해 7월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에게 공급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제도에 참여하려고 거짓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 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감추려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어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A씨의 행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방역위반 ‘유형주점’ 최다

각각 49%·78%...한병도 “일탈행위 엄정 대응해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4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집지역이고 환기가 쉽지 않은 유흥주점이 압도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만, 일부 경계심을 풀 방역수칙 미준수자들이 방역체계를 허물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광주·전남 업종별 코로나19 관련 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112건(166명), 전남 100건(243명)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유흥주점 35건(82명), 노래연습장 69건(76명), 단란주점 8건(8명)이며, 전남은 유흥주점 55건(191명), 노래연습장 38건(42명), 단란주점 7건(10명)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단속 건 중 유흥주점 관련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각 49%·78% 수치를 보이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천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천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 841명(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95명(0.6%)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화물연대 내달 총파업...2만명 참여 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명의신탁제 폐지 등 6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파업이 67.04%로 가결됐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은 2만3천명이며,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본격적인 총파업

은 내달 중순 시작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기한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면서 “대승적 결정에 따라 정부의 태도 변화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결의대회는) 정부에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땐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동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자중·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임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6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연환뉴스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돈되는 상가]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층 톨60개
- 급매8억
-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모텔·호텔(지역무관)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